

<진청13-26>

一三

朔風은 나모긋리¹⁾ 불고 明月 萬里邊城 존디²⁾ 萬里邊城에 一長劒 집고 서스 긴폭람 큰흔³⁾소뢰에 거칠거시⁴⁾ 업세라

●북 풍은 나무 끝에 불고 밝은 달은 눈 속에 찬데 머나먼 변방지역에 큰 한 자루의 칼을 짚고 서서 긴 휘파람 큰 고함소리에 두려울 것이 없어라.

▶초장에서 ‘삭풍’과 ‘명월’을 대구적으로 표현함으로서 겨울 밤 변방의 분위기를 묘사했고 중장에서는 장부의 호기를 일장검으로 나타냈으며 종장에서는 대장부의 호탕한 기개를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一四

長白山에 旗를 꽂고 豆滿江에 물을 싣겨 서근 저 선비⁵⁾야 우리 아니 스 나희⁶⁾냐 엇더타⁷⁾ 麟閣畫像⁸⁾을 누고 몬져 흐리오.

●장백산에 기를 꽂고 두만강에 말 씻기니 썩어빠진 선비야 우리 대장부가 아니겠는가 어떻게 인각화상에 누구 얼굴을 그릴까

▶초장에는 무인의 기개가 넘치고 중장에는 문관에 대한 힐책과 경고, 원망으로 충군 애국 정신이 있고 종장에는 무인으로서 떳떳한 자부심이 있다.

梅竹堂

成三問字謹甫虎梅竹堂世宗朝登第選湖堂登重試官至承旨與李壇等謨復?山事覺被誅後有六臣祠

작자소개 : 조선 사육신. 자는 근보(謹甫). 호는 매죽헌(梅竹軒). 시호는 충문(忠文). 도총관 성승의 아들. 1438년(세종 20) 식년문과에 급제했으며, 1447년 문과중시에 장원했다. 집현전 학사에서 수찬 집현전을 거쳐 왕명으로 신숙주와 함께 <예기대문언독(禮記大文諺讀)>을 편찬했다. 1442년 박팽년(朴彭年) 등과 함께 삼각산 진관사에서 사가독서를 했고, 정음청에서 정인지(鄭麟趾) 최항(崔恒) 박팽년 신숙주 강희안(姜希顔) 이개(李塏) 등과 함께 한글 창제를 앞두고 당시 요동에 유배되어 있던 명나라 한림학사 황찬(黃贊)에게 13번이나 내왕하면서 음운을 질의하고, 다시 명나라에 여러 번 건너가서 음운과 교장의 제도를 연구하여 그 정확을 기한 끝에 1446년 9월 29일 훈민정음을 반포케 했다. 1455년 예방승지로서 세조가 단종을 쫓고 왕위에 오르자 국채를 안고 통곡했으며, 다음해 좌부승지로서 아버지 승(勝) 박

1) 나무 끝에. 「나모」는 나무의 옛말이다.

2) 찬 데

3) 큰 고함소리 여기서 한은 큰(大)의 뜻이다.

4) 두려울것이 없어라

5) 썩어빠진 선비 여기서서 腐儒를 뜻한다.

6) 사나이

7) 「어떠하다」에서 파생된 것인데 「어쩌라」하는 정도의 감탄사이다.

8) 엇더타: ‘어떠하다’의 준말 여기서서는 감탄사로 쓰임. 인각화 : 옛날 당나라시절 국가에 공로가 많은 신하의 화상을 걸어놓은 집

평년 등과 함께 단종의 복위를 협의하여 4월에 여나라 사신의 송별 연회석상에서 운검을 쥐게 된 아버지와 유옹부가 세조를 죽이고 이어서 한명회(韓明澮) 권람(權攄) 정인지 등 일파를 없애기로 했으나 당일 운검을 그만두게 되어 후일을 기다리기로 했다. 그러나 모의에 가담했던 김질이 밀고함으로써 하위지(河緯地) 유옹부 이개 등과 함께 체포되어 친국을 받고, 거열의 극형을 받았다. 이어 아버지 승도 주모자로 극형을 당했고, 세 동생, 네 아들도 모두 살해되었다. 홍주의 녹운서원(綠雲書院), 육신묘가 있는 노량진에 세워진 민절서원(愍節書院), 영월의 창절서원(彰節書院), 의성의 학산충렬사(鶴山忠烈祠), 창녕의 물계서원, 연산의 충곡서원(忠谷書院) 등에 5신과 함께 제향되었다.

一五

首陽山⁹⁾ 바라보며 夷齊를 恨 하노라 주려¹⁰⁾ 주글진들 採薇¹¹⁾도 ㅎ는 것
가¹²⁾ 비록애 푸새엿 거신들¹³⁾ 그 뉘 짜해¹⁴⁾ 낫드니

●수양산 바라보며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를 먹다가 죽었다는 백이와 숙제의 형제를 한탄 하노라.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고사리는 왜 먹었는가?

비록 그것이 대수롭지 않은 풀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누구의 땅에서 낫단 말인가?

▶ 초장에 수양산은 백이 형제가 은거한 산 이름이지만 세조가 대군일 때 이름이 수양이므로 이것은 중의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종장의 ‘푸새’는 세조가 내리는 녹을 이야기한 것으로 굶어 죽어도 세조가 내리는 녹은 먹지 않겠다는 뜻이다. 작자 자신의 처지를 백이와 숙이 고사에 비추어 자신은 죽음으로 충절을 지키겠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백이, 숙제의 고사.

은나라 말, 주왕(紂王)의 폭정이 심해지자, 제후 서백(西伯-周王)의 아들 발(發-周武王)이 이를 치고자 하였다. 이에, 백이와 숙제는 "신하로서 군주를 치는 것이 어찌 인(仁)이라 하겠는가?"며 이를 만류했지만 끝내 발이 주를 치는 것을 보고는, "주나라의 곡식은 먹지 않으리라."며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를 뜯어 먹다가 굶주려 죽었다. 이로부터, 후세 사람들이 충의와 절개를 일컬을 때면 이들 형제의 고사를 인용하곤 하였다.

一六

이 몸이 죽어가서 무어시 될꼬 ㅎ니 蓬萊山¹⁵⁾第一峰에 落落長松¹⁶⁾되야이

9) 중국 산서성에 있는 산의 이름으로 백이·숙제가 숨어살다가 목숨을 마친 산

10) 굶주려. 기)주리다 → 주름

11) 고사리를 캐

12) 해야하는 것 인가

13) 푸새의 것인들 「푸새」는 산과 들에서 절로 나 자란 풀의 일종임 ‘엿’은 ‘엿기로’, ‘엿다’, ‘것으로’등의 옛 말이다.

14) 누구의 땅에 「뉘」‘누’의 관형격 「짜해」-땅이, ㅎ첨용어 ‘짜’의 주격이다.

15) 동해 한가운데 있으며 신선이 살고 있다고 생각되는 산의 이름. 한편으론 금강산의 판 이름 이긴 하나 여기서는 금강산을 이야기함이 아니다.

16) 가지가 축축 늘어지고 키가 큰 소나무

서 白雲이 滿乾坤¹⁷⁾홀제 獨也靑靑¹⁸⁾홀리라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 것인가 하면 저 신선이 살고 있다는 봉래산 가장 높은 봉우리에 싱싱하게 자라난 큰 소나무가 되었다가 흰눈이 온 누리를 덮어서 만물이 죽거나 거동을 못 할 적에라도 나만은 푸르디 푸른빛을 보여주리라.

▶이 시조는 당시의 시대배경인 단종의 폐위와 사육신의 죽음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작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단종에 대한 굳은 절개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꺾일 수 없다는 굳은 절개이다. 즉 죽음에 임하는 심경을 낙락장송에 빗대어 노래한 것으로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태연할 수 있는 굳센 의지, 심한 형벌에도 끝내 굽히지 않는 그의 굳은 절개가 엿보인다.

王 邦 衍

世宗詩人以金吾郎擄去魯山及還彷徨川邊有感而作是歌蓋卽此一曲欺人愛君之誠可見矣

작자소개 : 조선초기의 문인. 사육신을 중심으로 한 단종 복위사건이 사전에 발각되어 강원도 영월땅에 유배중인 端宗에게 1457년 사약이 내려질 때 그 책임을 맡고 있던 의금부 도사였다. 그는 영월에 이르러 사약을 받들고 端宗앞으로 나아가려고 했으나 감히 어찌해야할지 모르던 중 羅將이 시각이 늦어진다고 재촉하여 하는 수 없이 뜰 가운데 엎드려 있으니 端宗이 익선관과 곤룡포를 갖추고 나와서 온 까닭을 물었을 때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임금에게 사약을 드리는 일은 단종을 곁에서 모시던 貢生이 맡았다고 한다. 이외에 다른 왕방연의 자료나 시조는 전해져 내려오지 않고 있다.

一七

千萬里 머나먼 길에 고은님¹⁹⁾ 여회옵고²⁰⁾ 내 마음 들디 업서 냇²¹⁾에 안자이다²¹⁾ 저물도 내 안²²⁾갓도다 우리 밤길 네²³⁾닷다²³⁾.

●천리 만리 떨어져 있는 머나먼 외진 곳에다 어린 임을 내치어 이별하고 돌아오니, 이내 슬픔 붙일 곳이 전혀 없어 시냇가에 앉아 있으니 저 바위를 스치며 흘러가는 물도 마치 내 마음과도 같아 울며불며 밤길을 가는구나.

▶지은이 왕 방형은 조선 왕조 초기의 관원으로 세조가 신임하던 금부도사였다. 사육신의 사건이 탄로되어 上王으로 있던 단종이 노산군으로 강봉되어 강원도 영월로 유배되게 됨에, 왕 방형은 그 호송의 책임을 맡은 인물이었다. 세조가 命한 대로 임무는 완수하였지만 그 역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지라 돌아오는 길에 어는 냇가에서 앉아 읊은 것이 바로 위의 시조이다. 자연이란 괴롭고 슬픈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고 죄지은 사람의 마음도 씻어주는 어머니와도 같은 포근한 인간의 보금자리인 것이다. 섬기던 임금에게 사약을 전하고 돌아오

17) 천지에 가득함

18) 혼자만이 늘 푸름 여기서 「也」는 강세조사 이다. (음절을 맞추기 위한 동시 강세적어 조사이다.)

19) 端宗을 이름

20) 이별하옵고 「여회다」 - 기본형

21) 앉아 있습니다. 「하야」에 「이다」가 연결된 겸양서술종지형이다.

22) 나의 마음 「안」 - 마음 속

23) 가는구나 「네다」 - 가다 너다 널다. 사동형 가게 하는구나. 「~넋다」 ~는구나

는 신하로서의 죄책감은 삼강오륜을 최고로 삼았던 시대 사람으로서 찢어질 듯 한 아픔을 겪었을 것이다. 영월의 곡탄의 고개에서 흘러가는 시냇물을 바라보면서 괴로운 심사를 읊은 것으로 그 마음이 아주 절실하게 전해져 내려온다.

龔 岩 (漁父歌)

李賢輔字渠仲號龔岩燕山朝登第官至判中

지은이 소개 : 李賢輔는 호를 龔岩이라 하고 자를 斐仲이라 하였으며 세조 13년에 태어나 명종 10년에 89세를 일기로 세상을 마쳤다. 참찬 欽의 아들로 연산군 4년 문과에 급제하여 32세에 벼슬길에 올라 예문관 검열등을 거쳐 38세 때 사간원 정언이 되었으나 서연관의 비행을 논하다가 안동에 유배되었다. 그 뒤 중종반정으로 지평에 복직되어 밀양 부사등을 지냈고 1523년에 성주목사로 선정을 베풀어 표리를 하사 받았으며 1542년 76세 때 지중추 부사에 제수되었으나 병을 핑계로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에 돌아와서 만년을 강호에 묻혀 시를 지으며 한거하였다. 홍귀달의 문인이며 후배인 이황과 황준량등과 친하였다. 조선시대 자연을 노래한 대표적인 문인으로 국문학사상 강호시조의 작가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1700년 예안의 汾江서원에 제향 되었으며 저서로서는 <농암문집>이 전해진다.

그는 평생을 관직에 있었지만 후세사람들은 그를 관리로서보다는 학자로서 더욱이 시인으로서 그의 존재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다. 그는 학자로서 노력과 자취가 있었지만 그에게는 학문적 업적보다는 詩歌방면의 그것이 훨씬 압도했다. 그는 사상적, 학문적으로 조광조, 이문적, 이황등 당시 영남 사림학파의 계열에 속해 있으면서도 이들에게서는 볼 수 있었던 공통이념인 朱子道學이나 실천유학 같은 적극적인 학문연구에 의한 실적을 크게 발견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龔岩은 같은 영남사림과는 달리 국외자적인 입장에서 도학자로서보다는 詩歌人으로서 자연속으로 들어가 유유자적할 것을 바랐다. 자연 시나 江湖詩歌의 맥락은 조선초 맹사성의 강호사시가로부터 조준, 황희, 정극인의 상춘곡, 김구의 화전별곡, 龔岩의 귀전록 3장, 어부장단가와 宋純의 면앙정가로 이어지지만 그가 살았던 연사, 중종 조시대는 잇따를 土禍와 정치적 혼란으로 문학예술이 자연에 귀의하고자 하는 자연시가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퇴계 이황은 “龔岩야록”의 후기에서 龔岩을 가르켜 “부귀에 뜬 구름에 비기고 고상하고 품위있는 생각을 物外에 부쳐 낚시터를 배회하는 선생의 강호지락은 가히 진의를 얻었다.”라고 했다. 龔岩의 이 강호지락은 뒤에 호남 歌壇의 지남이라고 할 수 있는 宋純에게 영향을 주었고 후세의 이황, 이이, 박인로, 윤선도의 시가생활에 한 지침을 마련해 주었다고 하니 그는 강호가도의 창시자이고 자연미를 발견한 최초의 자연주의 문학자라고 한다. 龔岩은 만년에 어부장단가를 지어 龔岩야록이라 題하여 여기에 온 마음을 쏟았음은 이 어부가에 대해 만족하고 그는 그로 하여금 자신의 시정을 풀어놓았으니 그의 어부가적인 생활을 짐작하게 한다. 그는 만년에 가서 잠시도 어버이를 위한 정을 잊은 일이 없어 수 차례 고향 가까운 外職을 희망하여 인근 젊은이들의 교육과 노인들에 대한 공경을 다하면서 孝親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관직에 있는 동안 10차례나 어버이 공양을 핑계로 향리에 머물기를 청했으나 龔岩의 자연귀의의 열망이 어떠한가를 짐작 할 수가 있다.

一八

이 중에 시름 업스니²⁴⁾ 漁父의生涯로다 一葉片舟²⁵⁾를 萬頃波²⁶⁾에 띄여

두고 人世를 다 니젯거니²⁷⁾ 날가는줄을 안가²⁸⁾

●이 세상사는 근심걱정이 없으니 어부의 한평생 이로다. 조그마한 배를 한없이 넓고 넓은 바다에 띄어 두고 인간세상의 일을 다 잊고 사니 세월 가는 줄을 알기나 할 리요.

一九

구버는²⁹⁾ 千尋綠水³⁰⁾ 도라보니 萬疊青山³¹⁾ 十丈紅塵³²⁾이 언제나³³⁾ ㄴ고³⁴⁾ 江湖에 月白하거든 더욱 無心하애라

●고개를 숙여 아래를 내려다보니 깊고 깊은 물이 유유히 흘러가고, 다시 고개를 들어 좌우를 돌아보니 겹겹이 둘러싸인 푸른산이 우뚝우뚝 솟아있다. 열길이나 된직한 붉은 흙먼지가 저 속세의 번거로움과 허욕을 얼마나 가려주고 있을고. 여느때도 그렇거니와 이 강호에 달이 밝은 밤이면 더욱 속세에 뜻이 없는 나를 깨닫게 해주는 구나.

二〇

靑荷³⁵⁾에 밥을 뺏고³⁶⁾ 綠柳에 고기를 켜어 蘆荻花叢³⁷⁾에 비 때야두고 一般淸意味³⁸⁾를 어니 分³⁹⁾이 아랴실고

●푸른 연꽃 밥을 꺾고 푸른 버들가지에 고기를 꿰어서는 갈꽃떨기에 배를 매여 두었더니 내버려두어라. 이 평범한 보통한 보통사람의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淸意의 맛을 어느 누가 알아보랴(알겠는가?)

二一

山頭에 閑雲이 起⁴⁰⁾하고 水中에 白鷗一飛⁴¹⁾라 無心코 多情하니이 두 거

24) 시름이 없는 것은 「시름」 - 시름

25) 한 앞과 같은 조그마한 조각배

26) 萬이랑의 물결 곧 넓은 물결. 곧 넓은 바다의 물결.

27) 잊었으니 「잊엇거니」의 연음현상

28) 아는가 「ㄴ」은 현재계독시간보조어간이다.

29) 굽어보면

30) 천길 이나 될 듯한 매우 깊은 푸른 물 (강, 바다)

31) 수없이 겹겹이 둘러싸인 푸른 산

32) 높이가 열 길이나 되는 붉은 먼지의 뜻이나 세상 사람들의 쓸데없는 번민과 허욕을 말함

33) 얼마나 「언때」는 얼마이다.

34) 가려있는가 「ㄴ리+잊+는고」의 구조 「ㄴ리다」- 가리다 「~는고」는 의문형 종결어미

35) 푸른 연꽃

36) 찢고 꾸리고 (빼고, 뽑고, 따고, 꺾고 등의 옛말)

37) 갈대의 꽃 떨기 蘆와 荻은 모두 갈대를 의미한다. 갈대는 흰 꽃으로 가을에 필.

38) 보통 맑음의 맛. 보통사람의 맑고 깨끗한 淸의 맛이다.

39) 어떤 분

40) 한가로이 구름이 일고

41) 물위에는 갈매기가 날고 있다.

시로다 一生에 시름을 닛고 너를 조차⁴²⁾ 노로리라⁴³⁾

●산머리에는 한가로이 구름이 일고 물위에는 갈매기가 날고 있다. 속세에 뜻이 없고 다정한 것으로는 이 둘 뿐이렸다. 한평생 근시걱정을 다 잊어버리고서 너희들과 더불어 즐거이 보내겠노라.

二二

長安⁴⁴⁾을 도라보니 北闕이 千里로다 魚舟에 누어신들⁴⁵⁾ 니즌 스치⁴⁶⁾ 이시랴 두어라⁴⁷⁾ 내 시름 아니라 濟世賢⁴⁸⁾이 업스랴

●장안을 돌아보니 북쪽에 있는 대궐문의 거리가 천리나 되는 것 같다. 고깃배에 누워 있은들 나라의 일을 잊을 때가 있겠느냐 마는 내버려 두어라. 내가 근심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다. 세상을 구제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할 어진 사람이 없겠느냐?

▶이 오장의 원시는 작자를 알지 못한다고 龔岩은 밝히고 있다. 五章의 어부가는 곧 5首의 연시조를 형성하고 있다. 1首로는 어부의 생애를 노래하기에 부족하여 이렇게 五聯으로 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연에서는 一葉片舟를 萬頃에 띄어둔 어부의 생애가 시름이 없다고 노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 시름은 “이중에”없다고 노래하여 어부의 생활공간에는 아무런 걱정이 없다고 읊었다. 따라서 어부에게 가장 좋은 것은 “시름없는 生進”이라 노래한 것이 된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바깥은 시름이 많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곧 강호의 생애는 아무런 걱정이 없으나 江湖와 對가 되는 管路에서는 여러 가지 시름이 많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둘째 연에서는 話者의 위치가 片舟에서 陸地로 올라와 있다. 곧 곁에서 바라보면 千尋綠水, 돌아보면 萬疊靑山의 경계에 올라와 있다. 그러면서 十丈紅塵이 가려져 있는 바깥 세계와 격리된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때 月白하면 더욱 世事에 無心한 話者의 心情을 고귀하게 느끼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연에서는 다시 물가에서 배쪽으로 옮겨간 생활이 노래되어 있다. 밥은 靑荷에 싸고 고기는 綠柳에 끼는 자연과 동화된 삶이 나타나 있으며 그것은 풍류이면서 安貧樂道하는 심정을 노래한 것이다. 그리하여 一般淸 의미를 아는 이 적다고 읊었다.

넷째 연에서는 화자는 다시 산과 강이 함께 보이는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山頭의 閑雲이나 수중의 白鷗는 세속적인 욕심이 없다는 의미에서 무심한 것이며 화자에게 가까이 있다는 점에서는 다정한 것이다. 이들을 함께 하며 근심 없이 살고 싶은 것이 화자의 소원이다.

다섯 째 연에서는 세속이랄까 현실에 대한 고뇌가 드디어 표출되어 있다. 화자가 지금까지

42) 따라. 쫓아

43) 놀겠도다. 「놀오리다」의 연음 현상이다.

44) 중국 당의 수도 우리 시가에서는 흔히 한양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

45) 누웠은 들 「눅다」- 활용형 눅고, 눅디, 누분, 누보며

46) 잊은 사이, 잊은 때가. 「스치」는 명사가 「슌」으로 사이라는 뜻임

47) 시조의 종장에 사용되는 감탄사이다. 긴장된 기분이 탁 풀리어 모든 것을 체념의 경지에 이끌어 들어가는 효과가 있는 감탄사이다.

48) 세상을 건져낼만한 현인을 일컫는다.

시름없다느니 무심하다느니 시름을 잊었다느니 하는 말과는 달리 “니즌스치”없으며 “내시름”아니어도 濟世賢이 있겠느니 하고 미루어 두고 있다. 이것은 우리 시가문학에 있어 강화 생활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한다.

네 수까지 화자는 시름이 없고 十丈紅塵을 떠났다고 노래하였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바라는 東洋의 隱君子的 생활분위기가 그러나 제 5장에 이르러 愛國憂民하는 근심을 한 번도 잊을 때가 없다고 노래하여 전후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어부의 생활 자체가 이러한 兩面을 가진 것이 아닌지도 모르겠다. 太公望도 窮八十까지 어부로 자처하였으나 周나라 文王을 만나자 천하를 바로잡는데 크게 공헌하였기 때문이다. 현실을 떠난 강호의 아름다움에 취하면서 또한 취하여 자연과 동화되었다고 읊으면서 그 밑바닥에는 세상에 대한 근심, 濟世에 대한 걱정을 한때라도 잊을 수 없는 것이 어부다. 그 때문에 그는 어부와 다른 것이다. 지금까지 농암의 시가를 살펴보았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특성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우리말로 된 시가의 창작시기가 그의 致仕 이후인 老境에 들어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중년이후 그는 歸去來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것이 여의치 못하고 76세에 귀향하면서부터 주로 창작한 것이 그의 시조들이다. 이러한 老境의 작품은 그의 인생을 終結짓는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의 인생의 총결산이라고 할만하다. 그는 많은 작품을 한문으로 지었으며 可詠歌唱할 수 있는 작품으로 시조와 漁夫歌를 지었다고 생각할 때 이들 작품 가운데 末年의 感精이 짙게 표현되었음은 당연하다. 이러한 점은 이들 詩歌의 序文에 잘 나타나 있다. 時調에 관한 것들은 각 편마다의 서에 잘 나타나 있으며 <漁夫歌>의 다음 서에서도 그러한 뜻은 잘 나타나 있다.

兒孫輩들이 늦게 이 노래를 얻어와 내게 보이거늘 내가 보니 詞語가 閑適하고 意味가 深遠하며 吟咏한 뒤 사람으로 하여금 功名을 벗어나 표표히 멀리 나아가 塵外의 뜻을 가지게 함에 있어 이것을 얻은 뒤 전에 즐기던 가사를 모두 버리고 오로지 여기에 뜻을 두어 손수 책을 배껴

이러한 표현으로 보아 그가 얼마나 이들 詩歌를 사랑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 詩歌는 그의 歌詠生活의 진수를 엮은 것이라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둘째, 이들 詩歌가 江湖의 즐거움을 크게 강조한 점이다. 時調文學上 江湖의 樂을 노래한 것으로는 먼저 孟事誠의 江湖四時歌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江湖의 樂을 노래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亦君恩의 강조가 더 우세하다. 그리고 그 출전 역시 불분명하고 단지 珍本 <靑丘永言>에 나타날 뿐이다. 그러나 龔岩의 경우 그의 문집에 나올 뿐 아니라 退溪 문서까지 있어 문서적인 근거가 확실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改作이라는 풍조이다. 龔岩은 12장의 어부가를 9장으로 10장의 <漁父短歌>를 5장으로 축약하였다. 기존의 작품에다가 그의 뜻을 반영하여 새로이 만든 것이다. 새롭다하여 전혀 새로운 작품이 아니다. 그렇다고 하여 본래의 작품 그대로도 아니다. 전인의 작품에 자기 정서를 가미한 작품이다. 따라서 그것을 개작한 이에게는 자기의 작품이요 새로운 작품이라는 의미가 있다. 龔岩의 어부가는 바로 이러한 작품이다. 改作 前後를 비교하여 개작자의 정서나 독창성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작의 풍토는 새로운 개작을 낳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개작의 문을 열어놓은 것이다. 그리하여 어부가는 孤山에 의하여 다시 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禮安을 중심으로 한 嶺南 歌詠文學의 형성을 지적할 수 있다. 龔岩에게 <漁父歌>를 가져다 준 것은 그의 孫婿인 黃俊良이다 그는 周世鵬과 가까웠다. 龔岩은 <漁父歌>를 改作하며 退溪와 여러번 상의를 했다고 한다. 이렇게 볼 때 李賢輔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歌詠 그룹이 형성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權好文의 저작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으라 생각을 한다. 그리고 陶山書院을 중심으로 읊은 가사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한다. 사대부로서 江湖樂을 노래하면 한편, 亦君恩의 道德的이고 鑑 작품성향에 영향을 끼친 嶺南歌詠界의 비조나 거성으로 이현보의 문학사적 위치는 높이 평가해야 하리라 본다.

花 潭

徐敬德字可久號花潭 中廟朝授證文康

작자소개 : 중종때의 巨儒요 물질불멸론을 주장하던 대 철학자이다. 세상사람들이 그를 높여 부르기를 花潭선생이라 일컬었다. 당진 사람으로써 개성에서 태어나 18세에 대학을 읽다가 格物致知(격물치지 : 사물의 이치를 깨달음) 하고 나서, ‘나의 지식은 다 갖추었다’ 하며 크게 느낀바가 있어 우주의 진리를 탐구하고자 순전한 독학으로 일생을 철리탐구에 바치었다. 만년에 한때 벼슬에 오르기도 하였으나, 곧 버리고 개성으로 돌아가 花潭 逝間亭에서 자연을 벗삼으며 理氣學등의 저술을 남기었다.

二三

마음이 어린 後 | 니49) 흐는 일이 다 어리다 萬重雲山50)에 어니 님51) 오
리마는 지는 님52) 부는 바람에 형혀 권가53) 흐노라

●내 마음이 어리석고 보니 역시 내가 하는 일이 모두가 어리석기만 하다. 구름이 겹겹이 쌓인 이 깊은 산중에 누가 나를 찾아올까 마는 그래도 낙엽 지는 소리와 바람 부는 소리만 나도 혹시나 하고 요행으로 그 분인가 아닌가 하면서 창 밖을 내다보곤 한다.

▶이 시조는 서경덕이 벼슬에 뜻이 없어 성거산에 은일하여 도학에 전념하고 있을 때 지은 작품으로 속설에 의하면 黃眞伊가 서경덕에게 글을 배우러 다닐 때 그를 생각하며 지은 시조라고 한다. 곧 이 시조는 인간 본연의 마음은 어쩔 수 없어 남을 기다리는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한 작품이다. 초장의 ‘어리석다’함은 종장의 내용을 두고 이른 말이며 ‘떨어지는 잎’ ‘바람소리’는 환각을 불러일으키는 소재로 사용이 되었는데 낙엽지는 소리를 임의 발자국 소리로, 바람소리를 옷깃 스치는 소리로 느낄 만큼 임에 대한 그리움이 간절함을 말해 주고 있다. 체념하면서도 님을 기다리는 안타까운 심정이 잘 묘사된 작품이다.

49) 어리석은 고어에서 ‘어린’은 어리석은(愚)의 뜻으로 사용이 된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어의전성이 되어 나이가 어린의 뜻으로 쓰임.

50) 겹겹이 구름에 둘러쌓인 산

51) 어느 님

52) 떨어지는 잎. 「지다」는 떨어지다 이다. 지다는 디다의 구개음화 현상이다.

53) 행여나 그 임인가

頤 菴

宋寅字明仲號頤菴 中朝駙馬礪城尉治禮學善書法諡文端

작자소개 : 조선 전기의 학자. 본관은 여산(礪山). 자는 명중(明仲), 호는 이암(庵). 영의정 질(李)의 손자이며, 지한(之翰)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의령남씨(宜寧南氏)이다. 어려서 어머니가 죽자 외가에서 자랐다. 10세에 증종의 셋째서녀인 정순옹주(貞順翁主)와 결혼하여 여성위(礪城尉)가 되고, 명종 때 여성군(礪城君)에 봉해졌다. 의빈부·충훈부·사옹원·상의원 등에서 요직을 역임하고, 도총관에 이르렀다. 시문에 능하였으며 이황(李滉)·조식(曹植)·이민구(李敏求)·정림(鄭)·이이(李珣)·성혼(成渾) 등 당대의 석학들과 교유하였으며, 만년에는 선조의 자문 역할을 하였다. 글과 글씨에 능하여 산릉(山陵)의 지(誌)와 궁전의 액(額)으로부터 사대부의 비갈(碑碣)에 이르기까지 많은 글과 글씨를 남겼다. 그는 특히 오흥(吳興)의 필법을 받아 해서를 잘 썼다고 한다. 저서로는 《이암유고》 12권 4책이 있다. 그의 글씨는 양주의 덕흥대원군신도비(德興大院君神道碑)·송지한묘갈(宋之翰墓碣), 남원의 황산대첩비(荒山大捷碑), 부안의 김석옥묘비(金錫沃墓碑), 여주의 김공석묘갈(金公奭墓碣), 남양의 영상홍언필비(領相洪彦弼碑), 광주(廣州)의 좌참찬심광언비(左參贊沈光彦碑) 등에 전한다. 시호는 문단(文端)이다.

二四

이성저성⁵⁴⁾ 흐니 이른 일⁵⁵⁾이 무스 일고 흐롱 하룻⁵⁶⁾ 흐니 歲月이 거의
로다 두어라 已矣已矣여니⁵⁷⁾ 아니 노고 어이리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들을 두고서 이렇다 저렇다 하며 말들이 많으나, 이런 것들은 무슨 소용이더냐? 허둥허둥 거리다 보니 세월은 거의 다 가버리고 사람은 늙어만 가는구나. 내버려두어라 이미 지나가고 또 지나갈 날 뿐이겠으니 아니 놀고 어이하리.

二五

흔 들 설흔⁵⁸⁾날에 잔을 아니 노랏노라⁵⁹⁾ 팔 병도 아니들고 입덧도 아니
난다 每日에 病업슨덧으로란⁶⁰⁾ 찌지 말미 엇더리

●한 달 설흔 날에 잔을 아니 놓았노라. 팔 병도 아니 들고 입덧도 아니한다. 두어라 병없는 동안은 길게 취하여 깨어나지 않을 것이다.

二六

도른 말 卽時넋고 본 일도 못 본드시 내 人事 | 이러흠에 늬의 是非 모를

54) 이렇고, 저렇고

55) 이룬일 이루다의 활용형

56) 할 일이 없어 세월을 보내는 감탄어의 일종이다.

57) 세월이 거의 다 지나 갔도다.

58) 이미 지난 일리고 또 지나갈 것이니 부질없이 세월이 지나감을 말함

59) 서른, 삼십

60) 놓았노라 기본형 - 놓다

로다 다만지 손이 성하니 蠶잡기만 호노라.

●남한테서 들은 말도 돌아서면 즉시 잊어버리고, 내가 보았던 일도 그때뿐이요. 못본 것과 다름없이 지내고 있다. 내 인사 이리하기에 남의 시비를 알 리가 없으련다. 다만 지금 아직은 손이 성하니 술잔이나 기울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한 평생을 보내련다.

▶남의 잘못이나 단점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앓는 것이 군자의 처신이다. 더군다나 당파싸움에 여념이 없었던 지은이가 살던 시기에는 더더군다나 필요한 처세법이다. 어수선한 세상에 부질없이 참견을 했다가는 누명을 뒤집어쓰기 십상인 것이다. 다만 술을 마시는 일은 시비거리가 될 수 없으니 현실 도피 방법으로 최상의 길이었던 것이다. 이 한 수의 시조만 보더라도 그 당시의 사회가 얼마나 어수선 했는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하겠다.